

일개지역 전문대학 보건행정과 학생들의 전공 만족과 향후 진로 선택의 상관성

이여진^{1*}, 신준호¹

¹전남대학교 대학원 공중보건학과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Further Career Choices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College

Yeo-Jin Lee^{1*} and Joon-Ho Shin¹

¹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 대상은 광주·전남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으로 전공과 만족을 일반, 관계, 인식, 교과만족도에 따라 만족도를 파악하고 향후 진로 선택과 상관성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 하였다. 광주광역시 3곳, 전라남도 4개의 전문대학 대학생 27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 중 향후 전공 진로를 의무기록사로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중 62.4%가 전공과에 만족하였고, 향후 진로별로 전공 만족도는 차이가 있었으며, 의무기록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타 전공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에 비해 전공과 만족이 높았다. 보건행정학과 학생의 전공 진로 선택에 전공 만족이 미치는 영향 요인 중 일반적 특성에서 3학년에 비해 2학년의 전공 만족도가 4.13배 높았고, 입학 당시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그룹에 비해 자발적으로 전공(학과)을 선택한 그룹의 전공만족도가 8.04배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 만족 하위 영역 중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식 만족도가 하위 그룹에 비해 상위 그룹에서 전공 만족도가 3.93배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과 만족이 향후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분석한 결과 전공 진로를 의무기록사로 선택하고자 하였을 경우 의무기록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전공 만족도가 2.06배 유의하게 높았고,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의무기록사 그룹보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의무기록사 그룹에서 전공만족도가 4.51배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과 만족 및 향후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전공 만족 하위 영역 중 인식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과 선택에 만족하며,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진로 선택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진로가 다양한 보건행정 학과 특성을 고려한 각 전공 진로별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targeting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administration science in Kwangju & Chonnam, is aimed at understanding their satisfaction with majors according to general, relationship, consciousness, and subject satisfaction, and looking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and further career choices. This research set the 270 prospective graduates its study subjects based on convenience sampling.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students who want to choose their further major-related careers as medical records technician was greatest among the research subjects, of whom 62.4% were satisfied with their major subject while there existed a little difference in major satisfaction by further career. In addition, the students who want to choose the career of medical records filer showed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subject than those who want to choose other-major-related careers. In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the influential factors of major satisfaction in major-related career choices of a students of health administration science department, the 2nd year classes' major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4.13 times as high as the 3rd year classes while the major satisfaction of the group choosing their major subject spontaneously was found to be 8.04 times as significantly high as the group choosing their major subject involuntari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n major satisfaction among the sub-province of major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group having high consciousness satisfaction was 3.93 times as significantly high as the group having low consciousness satisfaction. A logistic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on further career choices, the major satisfaction of those wishing to choose their major-related career as a medical records technician was 2.06 times as significantly high as those who didn't choose a medical records filer as their career choice while the major satisfaction of the group spontaneously choosing the career of a medical records technician was 4.51 times as significantly high as that of the group involuntarily choosing the career of a medical records technician. There should be a plan for enhancing major satisfaction by each major-related career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 administration science department having diverse career choices.

Key Words : Career choices, Major satisfaction, Medical record technician, Health administration

*교신저자 : 이여진(julgi98@nate.com)

접수일 11년 11월 24일 수정일 (1차 11년 12월 12일, 2차 12년 01월 09일, 3차 12년 01월 17일) 게재확정일 12년 02월 10일

1. 서론

전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는 많은 대학 졸업자의 취업을 어렵게 하고 실업자로 전전하게 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보건의료 계열의 취업은 타 계열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 보고에 의하면 경제 위기 속 취업난이 가중된 시점에서도 대졸자의 취업 정보 조사에서 보건행정직이 포함된 의약계열은 다른 기타 전공계열에 비하여 높은 취업률과 전공 일치율을 보였다고 보고된바 있다[1]. 이와 같이 전공 학과의 부적응이나 불만 또는 학습이나 학업에 대한 부진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전공에 대한 자부심마저 약화시키며, 그로 인한 소속 학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그러나 전공 학과나 전공 학업에 대한 성취가 높으면 전공과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연구되기도 하였다[3]. 장문영(2005)은 대학생이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상실로 성적불량, 학교에서의 사회적 고립으로 소외감 유발,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불안과 신경증 등 심리적 문제 유발, 대학의 면학 분위기 저해,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개발 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4]. 또한 전공과만족도와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업우수 집단보다 학사 경고 집단의 전공과 만족도가 낮으며[5], 대학생의 진로 결정이나 미결정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6]. Logus(2005)의 연구에서 전공 만족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고 특히 개인의 특성, 직업에 대한 관심, 대학 전공 사이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7]. 이처럼 대학에서 전공 만족은 향후 진로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전공 만족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전공 만족에 대해 영향을 주는 학습자 변인에 대한 연구로는 효율적인 학습 전략[8], 학습동기[9,10], 개인별 성격적 변인[8]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김계현(1995) 연구에서도 전공 학과에 대한 불만족이 학업 성취 수준을 저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1]. 그러나 무엇보다 보건행정학과와 경우 진로 선택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의 전공 학업에 대한 각각의 접근이 필요하며, 진로와 관련된 전공 학업에 대한 만족과 관련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일반 전공에 대한 학업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계열 보건행정학과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보건행정과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가 향후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 중 한가지로 병원정보화로 우

리나라 의료기관의 업무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행정분야 업무환경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개지역 보건행정학과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과 만족을 분석하고, 전공 만족도의 개념을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일반, 관계, 인식, 교과만족으로 구분하고 향후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3개의 전문대학 및 전라남도 소재한 4개의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27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하였고, 응답이 불분명한 10명을 제외한 260명을 최종대상으로 하였다. 현행 교육과정은 조사 대상 기관인 광주·전남 전문대학 보건행정학과 홈페이지나 요람 및 해당 학과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였다.

2.2 연구 도구

설문지는 선행 연구된 하혜숙(200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5) 전문대학 학생 만족도 조사 연구의 질문지, 한국 교육개발원(2007)에서 개발한 교육만족도 지표 개발과 만족도 지수 산출 결과를 수정·보완하고 종합하였다[1, 3, 13]. 전공 만족도 도구의 타당도를 위해 현재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에 대해 취득하는 자격증에 따라 의무기록사, 병원행정사, 청구심사, 병원 서비스코디네이터, 기타(손해사정 의무기록 조사직 등) 5개 영역별로 각 10명씩 편의 추출하여 총 50명에게 면접으로 각 만족도 문항을 사전 조사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기로 하였다. 그리고 보건행정학과 교육과정 및 전공 만족도에 관한 전문가 3인의 내용 타당성 검증 후 설문지 문항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전공 만족의 하위 영역은 관계만족도 13문항, 일반 만족도 10문항, 인식 만족도 9문항, 교과 만족도 15문항, 전공 진로 조사 5문항, 전공 만족 2문항으로 총 54문항의 Likert's 5 poin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일반적 특성은 10문항이었다.

2.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2.0 for window(SPSS,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공 만족은 삼분위수 상중하로 구분하여 분포를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χ^2 -test로 비교 분석하여, p-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 진로와 전공과 만족에 관련된 영향 요인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전공 만족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자 중 남학생 28.5% 74명, 여학생 71.5% 186명으로 여학생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92.7% 241명으로 20~24세에 속하였다. 학년은 2학년이 87.7% 228명, 3학년이 12.3% 32명이었고, 수업연한은 2년제 74.2% 193명, 3년제 25.8% 67명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를 보면 2학년 54.8%이 3학년 31.3% 보다 만족하였고(p=0.01), 학과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표 1】 연구대상자의 전공 만족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Table 1】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구분		만족N*(%)	불만족N(%)	N(%)	X ²	P-value
성별	남성	41(55.4)	33(44.6)	74(100)	2.14	0.50
	여성	94(50.5)	92(49.5)	186(100)		
연령	20 - 24세	126(52.3)	115(47.7)	241(100)	12.15	0.81
	25세 이상	9(47.4)	10(52.6)	19(100)		
학년	2학년	125(54.8)	103(45.2)	228(100)	145.21	0.01
	3학년	10(31.3)	22(68.8)	32(100)		
수업연한	2년제	98(50.8)	95(49.2)	193(100)	2.24	0.57
	3년제	37(55.2)	30(44.8)	67(100)		
소속지역	광주광역시	90(53.3)	79(46.7)	169(100)	3.12	0.60
	전라남도	45(49.5)	46(50.5)	91(100)		
출신 고교 형태	인문계	79(47.3)	88(52.7)	167(100)	0.84	0.68
	실업계	44(50.6)	43(49.4)	87(100)		
	기타(특수고)	2(33.3)	4(66.7)	6(100)		
입학 지원 전형	일반전형	38(44.7)	47(55.3)	85(100)	0.15	0.14
	수시전형	91(54.5)	76(45.5)	167(100)		
	기타(검정고시등)	6(75.0)	2(25.0)	8(100)		
학과 입학 결정요인	자발적선택	107(71.3)	43(28.7)	150(100)	143.78	<0.001
	비자발적 선택	28(25.5)	82(74.5)	110(100)		
입학 전 정규 취업 경험	예	15(50.0)	15(50.0)	30(100)	23.45	0.85
	아니오	120(52.2)	110(47.8)	230(100)		
입학전 전공 및 진로이해	예	75(53.2)	66(46.8)	141(100)	1.34	0.71
	아니오	60(50.4)	59(49.6)	119(100)		

* N : 사람 수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학생 45.9%, 여학생 26.3%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았다(p=0.009). 수업연한은 2년제 교육과정에서 36.8%, 3년제 17.9%가 상이었다(p=0.02). 대상자가 속한 지역 중 광주광역시에서 39.6% 상, 전라남도에서 17.6%가 상에 속하였다(p=0.00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일반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일반 만족도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에서 남학생 27%가 상, 여학생의 11.3%가 상에 속하였다(p=0.006). 학과 입학 결정요인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생 15.5%가 상,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학생 15.5%가 상에 속하였다(p=0.009).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인식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인식 만족도 결과는 표 4와 같다. 입학 당시 지원 전형에서 일반전형 28.2%, 수시전형 34.1%가 상에 속하였다(p=0.02). 학과 입학 결정요인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생 42%,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학생 17.3%가 상에 속하였다(p<0.001).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관계 만족도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관 계 만 족 도			X ²	P-value
		상(명, %)	중(명, %)	하(명, %)		
성별	남성	34(45.9)	38(51.4)	2(2.7)	45.43	0.009
	여성	49(26.3)	129(69.4)	8(4.3)		
연령	20 - 24세	76(31.5)	155(64.3)	10(4.1)	0.78	0.62
	25세 이상	7(36.8)	12(63.2)	0(0)		
학년	2학년	79(34.6)	141(61.8)	8(3.5)	142.75	0.39
	3학년	4(12.5)	26(81.3)	2(6.3)		
수업연한	2년제	71(36.8)	115(59.6)	7(3.6)	57.14	0.02
	3년제	12(17.9)	52(77.6)	3(4.5)		
소속지역	광주광역시	67(39.6)	95(56.2)	7(4.1)	24.52	0.001
	전라남도	16(17.6)	72(79.1)	3(3.3)		
출신 고교 형태	인문계	61(36.5)	99(59.3)	7(4.2)	13.24	0.13
	실업계	22(25.3)	62(71.3)	3(3.4)		
	기타(특수고)	0(0)	6(100)	0(0)		
입학 당시 지원 전형	일반전형	34(40.0)	48(56.5)	3(3.5)	61.25	0.11
	수시전형	49(29.3)	111(66.5)	7(4.2)		
	기타(검정고시등)	0(0)	8(100)	0(0)		
학과 입학 결정 요인	자발적선택	51(34.0)	95(63.3)	4(2.7)	0.78	0.41
	비자발적 선택	32(29.1)	72(65.5)	6(5.5)		
입학 전 정규 취업 경험	예	9(30.0)	20(66.7)	1(3.3)	1.45	0.95
	아니오	74(32.2)	147(63.9)	9(3.9)		
입학전 전공 및 진로이해	예	43(30.5)	95(67.4)	3(2.1)	2.54	0.22
	아니오	40(33.6)	72(60.5)	7(5.9)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일반 만족도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ormal major satisfaction

		일 반 만 족 도			X ²	P-value
		상(명, %)	중(명, %)	하(명, %)		
성별	남성	20(27.0)	37(50.0)	17(23.0)	11.24	0.006
	여성	21(11.3)	121(65.1)	44(23.7)		
연령	20 - 24세	35(14.5)	149(61.8)	57(23.7)	5.48	0.14
	25세 이상	6(31.9)	9(47.4)	4(21.1)		
학년	2학년	36(15.8)	140(61.4)	52(22.8)	7.14	0.79
	3학년	5(15.6)	18(56.3)	9(28.1)		
수업연한	2년제	31(16.1)	118(61.1)	44(22.8)	6.24	0.91
	3년제	10(14.9)	40(59.7)	17(25.4)		
소속지역	광주광역시	28(16.6)	106(62.7)	35(20.7)	12.06	0.36
	전라남도	13(14.3)	52(57.1)	26(28.6)		
출신 고교 형태	인문계	28(16.8)	97(58.1)	42(25.1)	3.88	0.34
	실업계	11(12.6)	59(67.8)	17(19.5)		
	기타(특수고)	2(33.3)	2(33.3)	2(33.3)		
입학 당시 지원 전형	일반전형	12(14.1)	47(55.3)	26(30.6)	0.99	0.39
	수시전형	27(16.2)	106(63.5)	34(20.4)		
	기타(검정고시등)	2(25.0)	5(62.5)	1(12.5)		
학과 입학 결정 요인	자발적 선택	24(16.0)	101(67.3)	25(16.7)	12.55	0.009
	비자발적 선택	17(15.5)	57(51.8)	36(32.7)		
입학 전 정규 취업 경험	예	4(13.3)	17(56.7)	9(30.0)	5.27	0.66
	아니오	37(16.10)	141(61.3)	52(22.6)		
입학전 전공 및 진로이해	예	25(17.7)	86(61.0)	30(21.3)	4.15	0.50
	아니오	16(13.4)	72(60.5)	31(26.1)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인식 만족도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cognition major satisfaction

		인식만족도			X ²	P-value
		상(명, %)	중(명, %)	하(명, %)		
성별	남성	31(41.9)	34(45.9)	9(12.2)	9.48	0.08
	여성	51(27.4)	109(58.6)	26(14.0)		
연령	20 - 24세	74(30.7)	133(55.2)	34(14.1)	4.21	0.41
	25세 이상	8(42.1)	10(52.6)	1(5.3)		
학년	2학년	76(33.3)	124(54.4)	28(12.3)	0.98	0.14
	3학년	6(18.8)	19(59.4)	7(21.9)		
수업연한	2년제	61(31.6)	107(55.4)	25(13.0)	6.47	0.92
	3년제	21(31.3)	36(53.7)	10(14.9)		
소속지역	광주광역시	52(30.8)	99(58.6)	18(10.7)	2.13	0.13
	전라남도	30(33.0)	44(48.4)	17(18.7)		
출신 고교 형태	인문계	52(31.1)	87(52.1)	28(16.8)	32.45	0.26
	실업계	27(31.0)	53(60.9)	7(8.0)		
	기타(특수고)	3(50.0)	3(50.0)	0(0)		
입학 당시 지원 전형	일반전형	24(28.2)	42(49.4)	19(22.4)	14.24	0.02
	수시전형	57(34.1)	94(56.3)	16(9.6)		
	기타(검정고시등)	1(12.5)	7(87.5)	0(0)		
학과 입학 결정 요인	자발적선택	63(42.0)	74(49.3)	13(8.7)	1.11	<0.001
	비자발적선택	19(17.3)	69(62.7)	22(20.0)		
입학 전 정규 취업 경험	예	8(26.7)	20(66.7)	2(6.7)	16.30	0.32
	아니오	74(32.2)	123(53.5)	33(14.3)		
입학전 전공 및 진로 이해	예	47(33.3)	81(57.4)	13(9.2)	9.25	0.09
	아니오	35(29.4)	62(52.1)	22(18.5)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교과 만족도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 satisfaction

		교과만족도			X ²	P-value
		상(명, %)	중(명, %)	하(명, %)		
성별	남성	45(60.8)	27(36.5)	2(2.7)	1.12	0.06
	여성	92(49.5)	93(50.0)	1(0.5)		
연령	20 - 24세	123(51.0)	116(48.1)	2(0.8)	2.21	0.02
	25세 이상	14(73.7)	4(21.1)	1(5.3)		
학년	2학년	123(53.9)	102(44.7)	3(1.3)	24.45	0.41
	3학년	14(43.8)	18(56.3)	0(0)		
수업연한	2년제	106(54.9)	84(43.5)	3(1.6)	2.248	0.24
	3년제	31(46.3)	36(53.7)	0(0)		
소속지역	광주광역시	101(59.8)	66(39.1)	2(1.2)	7.45	0.007
	전라남도	36(39.6)	54(59.3)	1(1.1)		
출신 고교 형태	인문계	90(53.9)	75(44.9)	2(1.2)	6.32	0.88
	실업계	45(51.7)	41(47.1)	1(1.1)		
	기타(특수고)	2(33.3)	4(66.7)	0(0)		
입학 당시 지원 전형	일반전형	41(48.2)	44(51.8)	0(0)	1.65	0.37
	수시전형	90(53.9)	74(44.3)	3(1.8)		
	기타(검정고시등)	6(75.0)	2(25.0)	0(0)		
학과 입학 결정요인	자발적 선택	80(53.3)	69(46.0)	7(0.7)	2.34	0.68
	비자발적 선택	57(51.8)	51(46.4)	2(1.8)		
입학 전 정규 취업경험	예	17(56.7)	12(40.0)	1(3.3)	8.71	0.41
	아니오	120(52.20)	108(47.0)	2(0.9)		
입학전 전공 및 진로이해	예	80(56.7)	60(42.6)	1(0.7)	6.98	0.31
	아니오	57(47.9)	60(50.4)	2(1.7)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교과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교과 만족도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령에서 20-24세 51%, 25세 이상 73.7%가 상에 속하였다($p=0.02$). 대상자가 속한 지역 중 광주광역시에서 59.8%, 전라남도에서 39.6%가 상에 속하였다($p=0.007$).

3.6 전공 진로 선택에 따른 전공 만족 여부

전공 진로 선택에 따른 전공 만족 결과는 표 6과 같다. 향후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 진로에 따른 전공 만족은 의무기록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 117명 중 73명 62.4%, 청구심사 35명 중 18명 51.4%, 병원행정사 47명 중 23명 48.9%, 병원 서비스코디네이터 18명 중 8명 44.4% 기타(손해사정 의무기록 조사직 등) 전공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 43명 중 13명 30.2%이 전공 선택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p=0.008$).

[표 6] 전공 진로 선택에 따른 전공 만족 여부

[Table 6] The major satisfaction which follows in major selection

전공진로	전공 만족		N(%)	X^2	P-value
	만족(명, %)	불만족(명, %)			
의무기록사	73(62.4)	44(37.6)	117(100)	3.102	0.008
청구심사	18(51.4)	17(48.6)	35(100)		
병원행정사	23(48.9)	24(51.1)	47(100)		
서비스코디네이터	8(44.4)	10(55.6)	18(100)		
기타(손해사정 의무기록 조사직 등)	13(30.2)	30(69.8)	43(100)		

[표 7] 전공 진로 선택에 따른 전공 하위 만족도

[Table 7] The major subordinate satisfaction which follows in major course selection

향후 전공 진로 선택		상	중	하	X^2	P-value
관계만족도	의무기록사	34(29.1)	79(67.5)	4(3.4)	22.10	0.75
	청구심사	11(31.4)	23(65.7)	1(2.9)		
	병원행정사	16(34.0)	28(59.6)	3(6.4)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9(50.0)	8(44.4)	1(5.6)		
	기타(손해사정 의무기록 조사직 등)	13(30.2)	29(67.4)	1(2.3)		
일반만족도	의무기록사	12(10.3)	77(65.8)	28(23.9)	3.14	0.07
	청구심사	6(17.1)	23(65.7)	6(17.1)		
	병원행정사	12(25.5)	26(55.3)	9(19.1)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4(22.2)	12(66.7)	2(11.1)		
	기타(손해사정 의무기록 조사직 등)	7(16.3)	20(46.5)	16(37.2)		
인식만족도	의무기록사	51(43.6)	47(40.2)	19(16.2)	2.45	0.004
	청구심사	9(25.7)	25(71.4)	1(2.9)		
	병원행정사	13(27.7)	31(66.0)	3(6.4)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4(22.2)	11(61.1)	3(16.7)		
	기타(손해사정 의무기록 조사직 등)	7(16.3)	27(62.8)	9(20.9)		
교과만족도	의무기록사	67(57.3)	49(41.9)	1(0.9)	1.02	0.32
	청구심사	23(65.7)	12(34.3)	0(0)		
	병원행정사	22(46.8)	24(51.1)	1(2.1)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9(50.0)	9(50.0)	0(0)		
	기타(손해사정 의무기록 조사직 등)	16(37.2)	26(60.5)	1(2.3)		

3.7 전공 진로 선택에 따른 전공하위 만족도

전공 진로 선택에 따른 전공하위 만족도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공 진로에 따른 전공 하위 영역별 전공 만족 중 인식 만족도에서 의무기록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의 43.6%가 인식만족도 상에 속하였다. 이를 제외한 청구심사 선택자 25.7%, 병원행정사 선택자 27.7%, 병원 서비스코디네이터 선택자 22.2%, 기타(손해사정 의무기록 조사직 등) 선택자 16.3%가 상이었다($p=0.004$).

3.8 전공 만족에 따른 학년, 입학결정요인

전공진로 선택에 따른 전공만족의 영향 결과는 표 8과 같다. 보건행정학과 학생의 전공 진로 선택에 전공 만족이 미치는 영향 요인 중 일반적 특성 중 학년은 3년제 3학년 보다 2년제 2학년의 전공 만족도가 4.13배 높았다. 입학결정요인은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그룹에 비해 자발

[표 8] 전공 만족에 따른 학년, 입학결정요인

[Table 8] The grade which follows major satisfactorily, the entrance determining factor

구분		OR* (CI** _{95%})
학년	(3학년)	
	2학년	4.13(1.52-11.22)
입학결정요인	(비자발적)	
	자발적	8.04(4.19-15.14)
인식만족도	(하)	
	상	3.93(1.18-13.14)
	중	2.87(1.12-8.24)

* OR : Odd ratio

** CI : Confidence interval

[표 9] 의무기록사 진로로 선택에 따른 분석

[Table 9] The analysis which on medical record course follows in selection

의무기록사		OR* (CI** _{95%})
전공만족여부	(불만족)	
	만족	2.06(1.20-3.55)
학년	(3학년)	
	2학년	6.96(2.01-24.16)
입학결정요인	(비자발적)	
	자발적	4.51(1.55-13.09)
인식만족도	(하)	
	상	7.72(1.30-45.74)
	중	5.30(1.19-23.67)

* OR : Odd ratio

** CI : Confidence interval

적으로 학과를 선택한 그룹의 전공만족도가 8.04배 높았다. 하위 영역별 전공 만족도 중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식 만족도가 하인 그룹에 비해 상인 그룹에서 전공 만족도가 3.93배 높았다.

전공 만족이 향후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분석한 결과 의무기록사를 향후 전공 진로로 선택하고자 하였을 때 의무기록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전공 만족도가 2.06배가 유의하게 높았다(표 9). 학년에서는 3학년에 비해 2학년이 전공 만족도가 6.96배 높았고, 비자발적으로 학과를 선택한 의무기록사 그룹보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의무기록사 그룹에서 전공 만족도가 4.51배가 유의하게 높았다. 하위 영역별 전공 만족 중의 의무기록사를 향후 전공 진로로 선택한 그룹 중 인식만족도가 하인 그룹에 비해 상인 그룹에서 7.72배가 유의하게 높았다.

4.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전남 보건행정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 진로와 전공과 만족도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 취업자

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 전문대학 의약계열 취업률 현황 중 보건행정(학)과의 정규직 취업률은 68.9%로 의약계열 평균 75.7%보다 낮았다. 취업자 중 대학 전공과 자신의 일자리 업무내용의 일치 정도를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 일치한다고 응답한 전공 일치 비율도 57.9%로 의약계열 평균 70.9%보다 낮았다. 이것은 보건행정(학)과 특성상 처음 입사시 계약직 채용 비중이 의약계열 직종보다 많은 경우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문대학 의약계열이 4년제 의약계열에 비해 더 높은 취업률과 전공 일치 비율을 나타냈다[1]. 현재 학과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실적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전공 일치 비율 및 대학 전공 교육 수준 일치 비율이 낮은 원인을 찾고자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2], 전공 교육에 만족하는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과 전공 만족도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많은 경향을 보였고, 광역시 지역이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대비 많은 직업이 창출 되어짐에 따라 보건계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광주·전남 보건행정학과 대학생들은 다양한 전공 진로 중 의무기록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전공 진로별 전공 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의무기

록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다른 전공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에 비해 전공 만족도가 높았다($p=0.008$). 대상자가 입학 당시 전공(학과)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생은 전공(학과) 선택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송윤신 등(2003) 치위생과 재학생 학과 만족도 조사 연구에서도 입학결정 요인과 재학 중 학과 만족도와 관계에서 본인에 의해 입학을 결정했을 때 학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4]. 또한, 전문대학 교육 전반에 관한 학생 만족도 조사 연구에서 전공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은 낮았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공을 선택하였을 때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13].

향후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 진로에 따른 전공 만족은 의무기록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 중 62.4%가 전공과 선택에 만족하였고, 청구심사 51.4%, 병원행정사 48.9% 등 다른 전공 진로와 비교하면 전공과 선택에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8$). 이러한 결과는 보건행정학과 의 교육과정이나 운영 프로그램 구성이 의무기록사 전공 진로를 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행정학과 특성의 결과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보건행정학과 의 전공 진로 다양성이 반영된 의무기록사 이외의 전공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각 전공 진로별 전공과 선택 만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 진로에 따른 전공 만족 중 하위 영역 만족도를 전공 진로별 비교한 결과 인식 만족도에서 의무기록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 그룹 43.6%이 청구 심사 25.7%, 병원행정사 27.7% 등 다른 전공 진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4$). 여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미현(2006)과 남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재(2004)의 연구에서도 연구 도구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15, 16], 연구 결과 전공 만족도 하위 영역 중 인식만족도가 각각 4.30 ± 0.57 , 3.99 ± 0.74 로 다른 하위 영역 전공 만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혜숙(2000)이 96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전공과 만족의 5개 하위 영역 중 특히 인식만족도가 높았으며, 대학생들에게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공 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입임을 보고 하였다[3]. 보건행정학과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대학생의 전공과 선택 만족에 전공 하위 영역 중 인식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진다.

전공만족과 전공 진로 선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공과 선택에 만족한 학년, 입학결정 요인, 전공 만족 중 하위 영역인 인식 만족도가 전공과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학 입학 당시 자발적인 전공과 선택자들이 비자발적 선택자보다 전공 만족이 8.04배($OR=8.04$, $CI_{95\%}$

$=4.19-15.14$)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무기록사를 선택한 그룹이 선택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공과 선택 만족이 2.06배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전공 만족 하위 영역인 인식 만족도에서 의무기록사 선택자 중 인식만족도가 하인 그룹에 비해 상인 그룹이 7.72배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은 학년과 입학 결정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전공 하위 영역 중 전공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공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진로 선택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광주·전남 보건행정학과 대학생들이 향후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 진로별 만족은 차이가 있고,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 진로와 전공 만족은 상관성이 있다. 특히 전공 만족 중 하위 영역인 인식 만족도는 향후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에 영향을 미치며, 전공 진로를 선택할 때 인식 만족도가 높은 진로 집단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신 등(2003) 연구에서처럼 보건행정학과 대학생 역시 입학 당시 전공과를 선택 시 본인의 결정 의지가 전공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14] 향후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보건행정학과 전공의 특성화된 다양한 학과 소개 방법과 매체를 통한 학과 홍보 등 향후 보건행정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인상적인 학과와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광주·전남 보건행정학과 재학생 중 2학년 이상 졸업을 앞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공 만족의 측정 문항을 기존의 전공만족도 선행 연구 설문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학과 특성과 연구자 및 보건행정학과 전문가의 타당도 검토로 문항 수정 및 정의적 차별화를 두고 재해석한 표준 전공만족도 측정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공에 따른 만족도와 관련하여 전공 교수들의 유무등을 함께 조사하지 못하여 보건행정이란 넓은 범위에서 분석하여 해석에 유의하여야 하며, 향후 전공 교수분야별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KRIVET., "Occupational world-wide infra construction of future and employment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of junior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 2007.

- [2] K. W. Chang., H. K. Lee, H. J. Jeong., "Major part of a Student's Learning Whether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the Department of the School", J. Dental Hygiene, vol 2, pp. 137-146, 2008.
- [3] H. S. Hwa., "Department of college student satisfaction and about school satisfaction research", Seoul University, 2000.
- [4] M. Y. Jang., "Relationship of subject satisfaction, noble man propensity and course decision of college student", Ewha Womand University, 2004.
- [5] S. W. Kang, E. K. Lea, N. M. Yang., "A study About Developing the Academic Support System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High Achievers and Underachievers in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the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ng and Psychotherapy, vol 12, pp. 221-242, 2000.
- [6] S. C. Jang., "Course decisive type of college student and relationship of personal analysis", KonKuk Univerisity, 2003.
- [7] C. T. Logu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 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Tennessee, 2005.
- [8] M. G. Kim, G. H. Lee.,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on Academic Achievement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5, pp. 491-504, 2003.
- [9] J. S. Sim., "The studying motive improvement program affects in studying inactive self-will studying motive and studies accomplishing", Chungbuk University, 1997.
- [10] M. S. Lim., "Effect of the studying motive promotion program for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 Keimyung University, 1996.
- [11] K. H. Kim, H. R. Kim, J. H. Sun, S. K. Lee, J. S. Lee., " Studies accomplishing process of Seoul college student. Student research", pp. 18-37, 1995.
- [12] Y. K. Boo., "Medical record quality control plan", KMRA Management of workshop, 2007.
- [13] Korea Council for College Education, "About the junior college educational whole student satisfaction investigation research", 2005.
- [14] Y. S. Song, S. B. Kwon, K. S. Oin, Y. N. Kim, S. H. Kim, M. J. Cha., "A Study on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Majoring Dental Hygine at K-college", Kyung Bok College, vol 7, pp. 297-316, 2003.
- [15] M. H. Jeong, M. A.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2, pp. 170-177, 2006.

- [16] D. J. Lee., "Satisfaction of man nursing college student and relationship of nature bodily sensation and characteristic fixed idea", Yeounsae University, 2004.

이 여 진(Yeo-Jin Lee)

[정회원]



- 2011년 11월 ~ 현재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 2011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보건학, 보건관리

신 준 호(Joon-Ho Shin)

[정회원]



- 1992년 2월 ~ 현재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예방의학, 만성병 역학